

3차 석유위기 가능성 검토



박종욱

〈삼성물산 기획팀 전략기획실 과장〉

1. 왜 아랍 수뇌부는 승산 없는 전쟁을 일으켰을까?

1973년 10월에 벌어진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등 범 아랍권과의 싸움이였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그 이전에도 세 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만큼은 아랍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스라엘의 강력한 후원자는 미국이다. 또한 미국의 정치, 경제, 매스컴 등 주요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며, 유대 민족인 이스라엘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아랍 국가들은 군사 무기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보다 한수 아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 봐야 승리보다는 패배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권이 73년 10월 중동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풀어 보기로 하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 봐야 승리보다는 패배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권이 73년 10월
중동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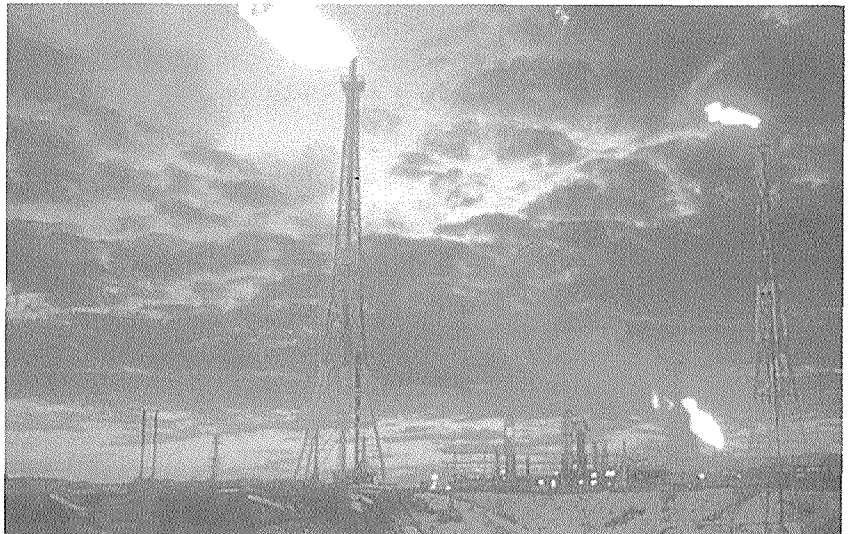
석유가격이 싸면 당연히 석유소비가 증가한다. 즉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사람들이 1시간 자동차 탈 것도 2시간 타게 될 것이고, 제조업체들의 석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유가가 싸면, 석유생산(석유공급)이 감소한다. 유가가 싸면 석유생산을 증가시킬 동기부여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가가 쌀 경우의 석유 공급감소는 OPEC(석유 수출국기구) 국가등과 비OPEC들의 입장이 다르다. 비OPEC국가들은 유가가 싸면 당연히 석유생산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중동산유국들을 주축으로 12개 산유국들로 구성된 OPEC국가들의 경우 문제가 다르다. 국가 경제 자체가 석유생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출액에서 석유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93년 기준으로 평균 84%임. 단, 평균계산시 이 비율이 13.7%에 불과한 인도네시아는 제외시켰음) 유가가 쌀수록 석유생산을 더 늘려야만 한다.

즉 석유생산 이외에 건설, 철강 등 다른 산업이 발달된 나라라면 유가가 쌀 경우 석유생산을 줄여도 국가경제가 지탱이 되겠지만, 석유생산 이외에 다른 산업이 변변한게 없기 때문에 더욱 더 거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동산유국들은 예를 들어 유가가 배럴당 28달러일때 100만배럴을 생산했었다면 유가가 14달러일때는 200만배럴을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저유가의 지속이 전세계적인 석유수요를 증가시키고, 비OPEC국가들의 석유생산을 감소시키며, OPEC국가들의 석유생산은 증가시키는데 이 세가지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OPEC국가들의 세계석유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장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에 OPEC국가들이 저유가 때문에 증가시켰던 석유생산을 반대로 감소시킬 수만 있다면, 전세계 석유가격이 폭등할 수 있게 된다.

OPEC국가들이 석유생산을 줄여 유가를 높여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최고 생산량 한도(쿼터)를 정함으로써 석유생산을 줄이고자 하는 회의를 빈번하게 개최한다. 이것이 소위 「석유생산 쿼터제 카르텔」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카르텔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유가가



낮은 관계로 국가경제를 지탱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생산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시가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OPEC가 갑자기 생산을 감축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중동내에서 전쟁이나 내전, 폭동 등이 발생하는 비상시에는 문제가 다르다. 이러한 비상사태가 생기면 당연히 석유생산이 부분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저유가의 지속은 시간이 흐를수록 중동산유국들의 경제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게 된다. 유가가 낮아 채산성이 형편없는데도 생산량을 늘려야만 되니 손실폭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상태의 어려움은 권력자들의 권력 유지를 위태롭게 한다.

경제가 어려우면 민초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권력자들이 필연적으로 권력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다.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박정희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이유 중의 하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중동산유국의 권력자들이 저유가로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물론 전쟁, 내전, 폭동 등의 비상사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비상사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감산이 이루어져 유가가 폭등함으로써 권력유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과거 73년과 79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던 석유위기(석유파동, 유가가 갑자기 3~4배 폭등하는 것)가 바로 이러한 패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즉 저유가의 지속으로 전세계적인 석유소비 증가, 비OPEC의 생산감소, OPEC의 생산증가가 이루어져 OPEC의 영향력이 증대된 상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석유위기가 발생했던 것이다.

1차 석유위기때의 비상사태는 73년 10월 중동전쟁이었고, 2차 석유위기때는 78년 이란의 민주화 혁명(이란의 석유 생산량이 급감)과 80년의 이란-이라크 전쟁이었다. 중동국가들이 승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73년 10월 중동전쟁을 일으킨 것은 전쟁으로 석유 증산을 감산으로 바꿔 유가를 폭등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중동의 권력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면 더욱 좋지만, 저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유가를 인상시키는 게 목표다. 다만 너무 크게 패해 영토를 많이 뺏기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측면에서 중동 지도자들의 권력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 확률은 별로 없다.」 우리는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다 하면 그저 민족 분쟁이거나 종교전쟁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히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73년 10월 중동전쟁을 일으켰던 모의자중 한 사람인 당시 이집트 대통령 안와르 사다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73년 10월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랍의 권력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것은 곧 이어 벌어지게 될 전쟁에 대한 전략을 짜기 위함이었다. 그때 모인 사람은

**중동국가들이 승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73년 10월 중동전쟁을
일으킨 것은 전쟁으로
석유 증산을 감산으로 바꿔
유가를 폭등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 이외에도 이란의 팔레비 국왕,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 등이었다.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석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탱크 한대를 움직이는데도 석유가 필요하니까. 전쟁에서 필요한 석유는 리비아의 카다피가 대 주기로 했다. 그리고 이집트와 시리아가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터지자 석유를 대주기로 했던 리비아의 카다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석유를 대 주지 않은 것이다. 우리로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우리들의 난감함을 해결해준 사람이 바로 이란의 팔레비 국왕이었다. 팔레비가 카다피 대신 석유를 대 준 것이다.』

사다트는 팔레비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다. 팔레비는 73년 10월 중동전쟁으로부터 6년후인 79년에 이란의 민주 혁명의 발생으로 권좌에서 물러나 미국에 망명했다. 그러나 곧 이어 이란 주재 미국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인질 사건이 터졌는데, 인질사건을 일으킨 이란 사람들은 미국측에 팔레비를 이란에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사관 직원의 생명을 지키는게 목적인 미국측은 처음에는 이 요구에 응할 듯이 보였다. 그러나 결국 팔레비를 이란측에 인도하지는 않았고, 미국에서 추방시켰다.

팔레비는 정말로 갈곳이 없었다. 아무리 빼돌린 자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어느 나라건 그를 받는다는게 용이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란은 팔레비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석유수입에 애로를 겪게 만들거나 군사 보복을 할 듯한 기세를 보였다. 그런데 이때 딱 한 나라, 이집트만이 팔레비를 받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팔레비는 이집트로 갔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최후를 마쳤다.

이집트의 사다트가 팔레비를 받겠다고 했을 때 필자는 그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 의문은 사다트의 자서전을 보고 풀렸다. 73년 중동전쟁 때 입었던 은혜를 갚았던 것이다.

2. 되풀이되는 역사의 악습

석유위기의 매카니즘은 인류의 전쟁 매카니즘과 매우 유사한데가 있다. 인간들은 전쟁이라는 가장 나쁜 해결책을 즐겨서 사용한다. 그러나 한번 사용하고 나면 그 끔찍함에 몸서리를 친다.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고, 다치고, 병신되고, 한이 맺히고 ... 그 덕분에 전쟁이 한 동안 뜸해진다. 그러나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못된 악습이 고개를 든다. 석유위기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석유값이 싸면 대책없이 그 짠맛을 즐긴다. 그러다가 석유위기가 터지면 「앗 뜨거워라」하면서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서 유가가 상승한 고로 석유소비를 줄이면서 석탄, 원자력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된다. 또한 비OPEC 산유국들의 석유생산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

석유위기의 매카니즘은 인류의 전쟁 매카니즘과 매우 유사한데가 있다. 인간들은 전쟁이라는 가장 나쁜 해결책을 즐겨서 사용한다. 그러나 한번 사용하고 나면 그 끔찍함에 몸서리를 친다

계 되면 1~2년 정도 석유위기로 높은 상태에서 있던 유가는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고,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비극이 터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1차 석유위기가 73년, 2차 석유위기가 79년이라면 1차와 2차 사이에는 6년밖에 간격이 생기지 않았는데, 왜 79년부터 96년 현재까지 무려 17년이나 아무 일이 없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사실은 91년 초가 매우 위험한 시기였다.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점령함으로써 3차 석유위기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세인은 명분이 너무 약했다. 이스라엘을 주요 공격 목표로 삼은게 아니라 힘도 없는 동쪽 쿠웨이트를 주공격 목표로 삼았으니 전쟁의 명분이 약했던 것이다. 동쪽을 침공해 놓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듯이 우리도 쿠웨이트를 점령했다고 하는게 약한 명분일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또한 쿠웨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레이트 등과 함께 아랍권에서는 부유한 국가그룹(GCC)으로 분류되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 그룹은 나름대로 강력한 연대감을 갖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시에도 자금의 주요한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해 놓고 서방세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자고 아랍권의 단결을 호소하는 것은 처음부터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쿠웨이트 이외의 다른 GCC국가들이 반발할 뿐더러, GCC 이외의 중동 국가들도 GCC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군사력이 강한 일부 아랍 국가들을 구슬려 다국적군에 포함시켜 놓은 것도 후세인의 계획이 좌절된 또 다른 이유이다. 미국은 이집트, 시리아, 이란 등을 군사원조, 경제원조, 서방세계와의 관계 개선(이란)등을 미끼로 유혹했다. 이들 국가들은 가뜰이나 후세인 편을 들어줄 명분이 약한 편에, 미국의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후세인은 고립무원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군사전략적 측면에서도 다국적군 사령관 슈윙츠코프 장군에게 밀렸다. 전쟁은 너무 빨리 일방적인 다국적군의 승리로 끝나 버렸고 후세인의 3차 오일쇼크 시도는 미수에 그쳐 버리고 말았다.

3. 어떤 형태로 3차 석유위기가 올까?

필자는 저유가 상태가 10년만 지속되어도 석유위기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79년 2차 석유위기로부터 무려 17년이 지난 시점이다. 아랍국가들의 경제 상태가 말이 아니다. 가장 부유한 국가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마저도 국가의 재정적자가 극심하다. 아랍 민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왜 썩 유가로 서방세계는 재미보고 자기들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는 생각으로 충만해 있

**전쟁은 너무 빨리 일방적인
다국적군의 승리로
끝나 버렸고
후세인의 3차 오일쇼크
시도는 미수에
그쳐 버리고 말았다**

다. 가장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가능성은 73년 10월 중동전쟁의 재현이다. 즉 아랍의 수뇌부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다시 모여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때 모의에 가담했던 핵심멤버 중에서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과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은 지금도 권좌를 지키고 있다. 또한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이들 보다 더 호전적이다. 또 하나의 군사 강국 이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란의 권력자 라프산자니 대통령은 「여우」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제난에 견디다 못한 그는 최근 몇년전부터 무기개발 특히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 서방세계를 아연 긴장시키고 있다. 이들이 후세인처럼 시원찮은 명분이 아닌 제대로 된 명분을 가지고 아랍권을 결속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아랍지도자들의 전쟁모의가 아니더라도 중동지역에서의 전쟁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중동지역은 다 민족, 다 인종, 다 종교, 다 정치제도 등의 이질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곳이다. 따라서 언제 어느때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이는 얼마든지 3차 석유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전쟁이 아닌 민중의 폭동이나 사보타지가 일어날 가능성도 도처에 널려 있다. 즉 위로부터의 돌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돌발사태가 날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걸프 전쟁 직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에서 방화사건이 있었고 이것이 민중들의 사보타지가 아니냐는 논쟁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4. 3차 석유위기의 발생 가능 시기는?

그렇다면 3차 석유위기의 발생 가능시기는 언제쯤일까?

경제학 용어 중에 가동률이란게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이라크의 유전에서 채굴 가능한 석유의 양이 1,000만 배럴이고 실제 채굴한 양이 500만 배럴이라고 하면 가동률은 $500\text{만}/1000\text{만} \times 100 = 50\%$ 가 된다. 즉 가동률은 생산량을 생산능력으로 나눈 것이다. 분모의 생산능력은 생산가능한 새로운 유전을 개발함으로써 증가하는 것이고, 생산량은 생산능력의 범위내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생산가능한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곧 바로 생산 능력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발견에서 생산까지는 몇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요즘에 구 소련연방의 독립국가들이 유전개발을 본격화하면 OPEC의 영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은 물론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유전발견이 생산으로 직결되는데 몇년의 기간과 막대한 개발비용이 필요한데 유가가 비싸다면 몰라도 지금처럼 저유가가 10년 넘게 지속된 상태에서 유전개발의 본격화가 당분간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OPEC의 영향력 감소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중동산유국들의 가동률이 일정선에 도달하는 시점이 3차 석유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다. 이 선에 도달하면 비상사태가 터져 석유위기가 일어나게 된다. 과거 두차례의 석유위기가 바로 이러한 패턴에 의해서 발생했다

3차 석유위기의 발생 가능 시기는 OPEC 산유국들의 가동률로써 파악해야 한다. 앞에서 저유가가 지속될수록 전세계적으로 석유수요가 늘고, 비OPEC국들의 석유공급이 감소하며, OPEC의 석유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중동 산유국의 가동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유가가 싸게 되면 비OPEC국의 생산능력이 정체되고 OPEC국의 생산능력도 정체된다. 따라서 OPEC가동률 계산시 분모의 증가가 정체된다. 그런가 하면 유가가 싸 석유수요가 늘어난 상태에서 비OPEC국들이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OPEC국들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즉 분자가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중동산유국들의 가동률이 일정선에 도달하는 시점이 3차 석유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다. 이 선에 도달하면 비상사태가 터져 석유위기가 일어나게 된다. 과거 두차례의 석유위기가 바로 이러한 패턴에 의해서 발생했다.

5. OPEC의 가동률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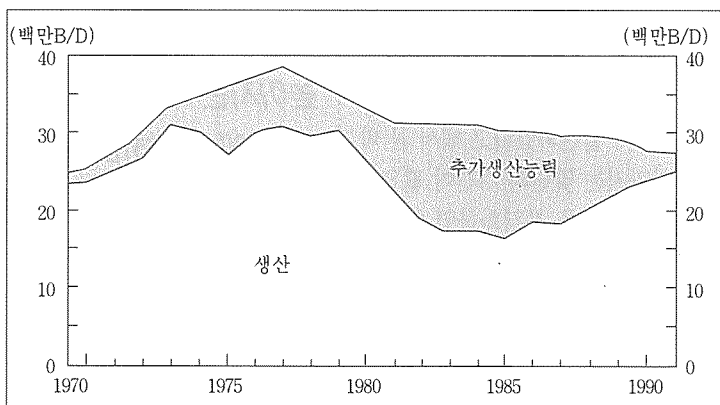
OPEC의 가동률은 각 연구기관마다 발표하는 수치가 다르다. 분자의 생산량은 OPEC국가들 스스로가 발표하는 생산량과 연구기관이 발표하는 생산량이 있는데 양자간에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연구기관이 발표하는 생산량이 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OPEC국들의 실제 생산량이 자국에 할당된 쿼터 이상인 경우가 종종 있어 실제 생산량과 발표하는 생산량이 다를수 있기 때문이다.

분모의 생산능력은 분자의 생산량보다 더 견해차이가 심하다. 왜냐하면 연구기관

마다 견해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기는 해도 대체적인 상승과 하락 추세는 견해가 일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기관 중 하나인 OGJ(Oil Gas Journal)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20년간의 OPEC생산능력을 나타낸 그림은 <그림-1>과 같다.

<그림-1>은 OPEC의 생산능력, 실제생산량, 추가 생산능력(Excess Capacity)을 나타내고 있는데, $\text{생산능력} = (\text{실제})\text{생산량} + \text{추가생산능력}$ 이다. 따라서 추가생산능력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이 OPEC의 가동률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데, 73년과 79년의 1, 2차 석유위기때 길이가 짧아짐을

<그림-1> OPEC석유 생산추이



<자료> OGJ

알 수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90년대 후반에 1, 2차 석유위기때 정도의 길이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림-1>은 90년까지만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약간 바뀌었다. OPEC의 생산량이 91년 걸프전쟁 이후부터 하향추세를 보여 가동률의 상승추세가 주춤해졌다. 이는 이라크가 석유수출 금지 조치를 당한데다 걸프전쟁때 짧으나마 고유가의 맛을 본 OPEC국들이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감산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OPEC의 기대와는 달리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고, OPEC의 감산노력도 94년경부터 한계에 부딪혔다. 유가가 싼 상태에서 더 이상 감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94년경부터는 OPEC의 가동률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대신경제연구소의 김진선 박사의 OPEC가동률 예측을 보자<그림-2>. 김박사는 91년 보고서에서 OPEC의 가동률이 과거 1, 2차 석유위기 때 90%를 돌파했고, 90년대 후반에 (98년경) 세 번째로 90%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김박사가 91년 시점에서 예측한 96년 가동률이 89%였으나, 실제로는 86-87%에 달하고 있어 김박사식 분석법으로 하면 석유위기의 발생시기가 98년보다 1-2년 연기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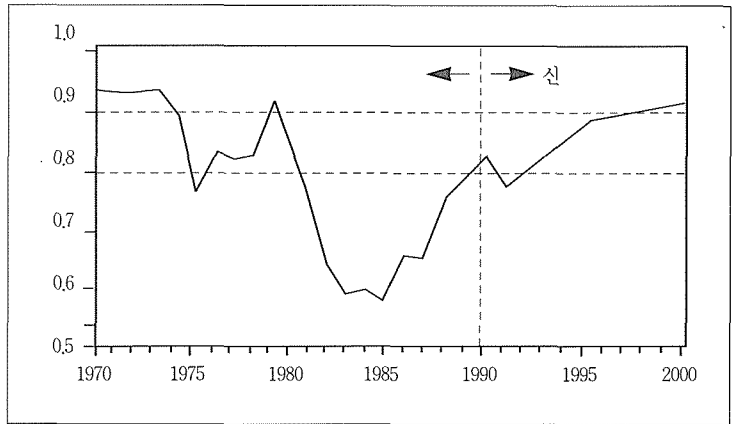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전세계 석유생산에 대한 중동의존도 전망치를 보자.

<그림-3>에서 보듯이 EIA는 1999년경에 2차 석유위기 때의 OPEC가동률이 재현된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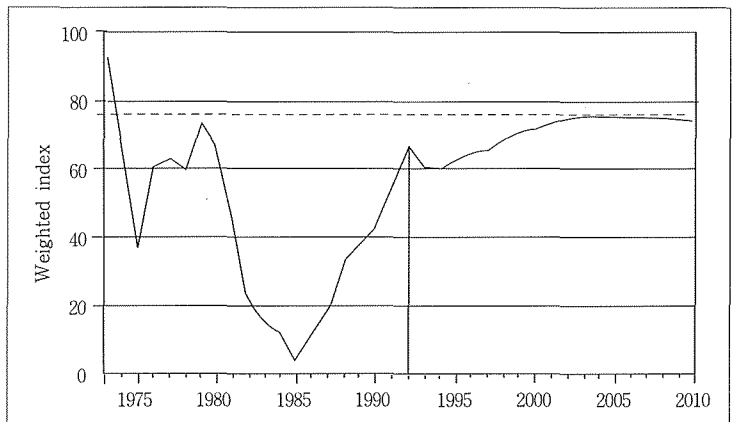
이상 세군데 예측기관의 예측을 종합하면 3차 석유위기는 98년-99년경에 온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OPEC의 가동률이 굳이 90%를 돌파하지 않고 80%만 넘게 되더라도 석

<그림-2> OPEC가동률 실적 및 전망



<그림-3> 전세계 석유생산에 대한 중동의존도



유위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석유 전문가들도 많은 만큼 석유위기의 가능성은 96년 10월 현재 시점부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석유위기 가능성을 높이는 3가지 새로운 변수

최근들어 석유위기의 가능성을 높이는 3가지 새로운 변수가 떠오르고 있다.

첫째, 세계경제의 성장에 따른 석유소비량의 증가이다. 세계경제는 93년경부터 침체를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석유소비도 당연히 증가한다. 또한 석유소비가 증가하면 공급부족으로 인한 석유위기의 위험이 한층 높아진다. 그런데 95년, 96년의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전년비로 성장세가 약간 둔화되거나 둔화될 전망이다. 95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이 2.4%로 94년보다 성장률이 낮았고, 96년 예상성장률도 2.6%로 당초 예상에 못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97년에는 3.3-3.4%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97년의 오일쇼크 위험이 95,96년 보다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둘째, 이스라엘의 태도 변화이다. 93년 워싱턴에서 PLO의 아라파트 의장과 팔레스타인 자치에 관한 원칙선언에 조인했고, 과거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시나이 반도의 시리아에 대한 반환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중동평화의 화신인 라빈 이스라엘 총리의 암살은 이 지역에 대한 전쟁 가능성을 크게 높여놓고 있다. 게다가 옆친데 덮친 격으로 96년 5월의 이스라엘 총리 선거에서 라빈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기대되던 페레스 후보가 강경파인 네타냐후에게 패하고 말았다.

새 총리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 독립 불가 방침을 내세움과 동시에 시리아에 대한 골란고원 반환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중동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불만에도 불구하고 참아온 것은 67년 6일전쟁때 뺏겼던 골란고원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를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되찾을 수 있다는 것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 희망이 라빈의 죽음과 함께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이다. 네타냐후에 대한 아랍국들의 불만은 최근 이집트에서 개최된 아랍 정상회담에서 분명하게 표출되었다. 21개국 아랍 정상들은 이스라엘이 「평화와 점령지 교환 원칙」등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동은 다시 긴장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셋째, 미국의 태도 변화이다. 미국은 걸프전쟁 발발 직후에 이라크를 고립시키기 위해 여타 중동국가들에게 경제, 군사원조를 해 주었고, 중동 평화협상을 적극 지원해 주었다. 이것이 중동국가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제 경제, 군사 원조의 약효가 떨어질 시점이 된 데다, 강경노선을 걷는 네타냐후에게 미국의 말이 먹혀들지 않음에 따라 지금까지 따 놓은 점수가 없어져 버렸다.

최근들어 석유위기의
가능성을 높이는 3가지
새로운 변수가
떠오르고 있다.
그것은 첫째, 세계경제의
성장에 따른
석유소비량의 증가이고
둘째, 이스라엘의
태도 변화이며
셋째, 미국의 태도 변화이다.

게다가 최근에 미국이 이란, 리비아 경제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이라크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TWA 여객기 폭발사고가 발생한 배후에 이란과 리비아가 있다며 이들 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 법안인 「다마토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건은 단서 하나 찾지 못하고 미궁에 빠져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명분없는 다마토법을 강행해 이들 나라와 거래하려는 외국 기업과 정부에 보복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라크에 대한 미사일 공격도 국내 여론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국제적으로 적법성과 형평성을 모두 잃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제법상 다른 나라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자위권 행사이고, 다른 하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있을때인데, 미국의 이번행위는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번 사건에서 안보리 결의를 얻어내려 했지만 러시아, 중국, 프랑스의 반대로 실패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라크 영토 내에 있는 쿠르드족끼리 친이란파와 친이라크파로 나뉘어 싸움을 벌이고 있고 지난 7월 이란군이 이라크 영토에 침범해 친이란파를 도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에 대응해 8월에 이라크군이 자국영토내에서 친이란계 쿠르드족을 돕는 것을 응징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아랍국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위가 가뜩이나 경제 제재로 굶주리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에 대해 「시체에 채찍질 하는 행위」라고 흥분하고 있다.

7. 중동지역 중 분쟁 가능성이 특별히 높은 지역

앞에서 설명했듯이, 중동은 다민족, 다인종, 다종교, 다정치제도 등 너무나 많은 불안요인을 가지고 있는 화약고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분쟁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분쟁가능성이 높은 지역 세 곳을 꼽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리아와 이스라엘간의 분쟁이다. 지금 두나라는 골란고원의 반환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필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의 주요 물 공급지이다. 67년에 터졌던 6일전쟁의 원인이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에 걸쳐 흐르는 요르단강의 수원지 확보 분쟁이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시리아가 요르단강 상류에서 물길을 차단하자 이스라엘이 전면 공격을 개시했던 것이다.

지금 물부족은 지구촌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용수난에 부딪친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수원 확보 경쟁에 돌입하고 있고, 특히 사막이 대부분인 중동의 물부족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심각하다. 궁교롭게도 이스라엘은 시리아에게 반환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분쟁가능성이
높은 지역 세 곳을
꼽아 보면
시리아와 이스라엘간의
분쟁과 터어키, 시리아,
이라크 3개국간의 분쟁,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의
분쟁이다.

것을 검토했던 골란고원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립 예정지였던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대한 물공급 의존도가 83%에 달하고 있다.

둘째, 터키, 시리아, 이라크 3개국간의 분쟁이다. 터키에서 발원, 시리아와 이라크를 관류하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놓고 이 세 나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터키가 89년에 강 상류에 댐을 건설해 강물이 줄어 들자 시리아와 이라크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셋째, 이란과 이라크의 분쟁이다. 이미 두 나라는 80년부터 8년 전쟁을 치른 바 있다. 향후 분쟁의 불씨는 쿠르드족 문제와 회교노선 문제이다. 쿠르드족은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등에 흩어져 사는 민족을 말하는데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은 서부지역에 친이라크계, 동부지역에 친이란계로 나뉘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이라크측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현재 친이란계는 마지막 거점까지 위협당하고 있으며, 이란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다. 또한 이란은 시아파 회교도가 많고 이라크에는 수니파 회교도가 많은데 이라크 남부에는 시아파 회교도가 많이 살고 있다. 이란은 지금 커다란 유혹을 받고 있다. 이라크가 걸프전쟁의 후유증으로 군사력이 많이 약화된데다, 국제적으로 석유수출금지 조치까지 당하고 있어 경제도 말이 아니다.

게다가 이번에 미국의 미사일 공격이 이라크 남부지방에 집중되어 이라크 남부지방의 전투력이 많이 약화되었으며, 비행금지 구역도 확대되었다. 이란이 이라크 북부의 친이란계 쿠르드족을 지원하면서 이라크 남부의 친이란계 회교도의 입지를 살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 온 것이다. 따라서 이란의 개입이 사태를 건 잡을 수 없이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석유위기가 OPEC의 가동률이
높아져 기온이 무르익은
상태에서 비상사태가
터짐으로서 발생된다면
1, 2차 석유위기때의
비상사태와 결정적으로
석유수급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8. 1, 2차 석유위기시의 비상사태 검토

석유위기가 OPEC의 가동률이 높아져 기온이 무르익은 상태에서 비상사태가 터짐으로서 발생된다면 1, 2차 석유위기때의 비상사태와 결정적으로 석유수급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73년 1차 석유위기는 다음의 4가지 요인에 주목하여야 한다.

첫째, 73년 10월의 중동전쟁이다. 전쟁은 그 자체의 수행을 위해서 석유를 필요로 할 뿐더러 정상적인 석유생산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미국 달러화의 신뢰성 상실이다. 당시 미국은 월남전, 위대한 미국 건설 등으로 해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었다. 한편 석유의 구입을 위해서는 기

축통화인 달러화가 필요했는데 신뢰성 상실로 달러가 있어도 석유구입이 원활치 않자 전세계적으로 기초자원(특히 석유)에 대한 투기적인 쟁탈전이 벌어졌고 이것이 가뜩이나 증가추세에 있던 세계 석유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던 것이다. (지금의 상황과 비슷함)

셋째,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동서 화해무드의 시작이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동안 자본주의-공산주의 간의 치열한 체제대립은 긴장완화의 데탕트 시대로 옮겨가게 되었고, 자유세계 내부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키는 내셔널리즘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무렵 선진국들간에 통상마찰이 빈번해진 것도 이러한 내셔널리즘의 한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제 3세계의 경제개발과 공업화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따라서 제 3세계의 내셔널리즘이 더욱 강하게 표출되었고, 중동국들의 석유무기화는 제 3세계의 내셔널리즘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것도 지금의 상황과 비슷함)

넷째, 1973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원유수입 할당제도를 폐지시킨 일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원유 수입량이 급증함으로써 가뜩이나 증가추세에 있던 세계석유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다.

79년의 2차 석유위기는 다음의 4가지 변수에 주목하여야 한다. 첫째, 1973년 이후 미국과 소련에서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석유소비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가뜩이나 증가추세에 있던 세계석유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다. 둘째, 78년에 이란에서 팔레비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화 혁명이 발생하여 이란의 석유 생산량이 급감하였다.

셋째, 79년 리비아의 카다피가 이란의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여 석유생산을 감소시켰다. 넷째, 80년에 촉발된 이란-이라크 전쟁이다.

9. 유가상승세는 대세일

필자는 3차 석유위기가 거의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필자의 생각과는 달리 설사 석유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가상승세는 대세이다. 중동산 유국들의 돌발적인 공급감소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석유의 수요공급 상황을 볼 때 2005년경에는 공급부족이 예상되며, 적어도 향후 20년 동안은 석유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

필자는 3차 석유위기가 거의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필자의 생각과는 달리 설사 석유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가상승세는 대세이다